

발신 : 돈독 오른 데나

수신 : 의기충천 13대 집국들

## 총무국 1학기 살이 평가서

**잠깐!** 첫 번째 엘티에 왔을 때 이런 순간이 일케 빨리 오리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었는데 벌써 두 번째 엘티를 맞이하게 되었군요. 그 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싶기도 하고 여성제라는 큰산만 넘으면 집국일들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흥분해지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평가에 들어가자면...

**하나! 1학기 예산안 작성** - 12대에서의 이월금이 넘어오는 것이 상당히 늦어졌었고 총무 개인적으로 보면 상사의 경험이 없어 기천만원 단위의 막대한 자금을 굴리는 감을 익히지 못하였던 탓에 짜임새 있는 예산안이 빨리 나오지 못했었습니다. 1학기 엘티와 3월달에 작성한 예산안은 12대의 예산안을 대부분 참고한 것이었으며, 13대만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예산안은 5월 9일경에 나왔는데 거의 중간 결산 작업과 병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학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 예산안은 비록 2학기 학생회비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1학기 예산안을 작성할 때보다 빠르고 짜임새있게 작성해낼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두울! 예산 자치제** - 홍보 부족과 운영상의 미숙함으로 많은 아쉬움과 함께 엄청난 이월액을 남긴 사업이었습니다. 먼저, 여성학 수업에 대한 수시지원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13대 예산 자치제의 특색이라 할 수도 있었는데, 수시 지원 홍보를 화장실 신문과 홈페이지를 통해 하였으나 많은 학우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학 수업에 직접 들어가는 방식의 홍보도 잘 활용할 수 있었다면 보다 많은 학우들이 수시지원에 대해 관심을 가질수 있었을 것입니다. 수시 지원 홍보를 각 수업마다 조모임이 활성화되기 직전인 3월 말 경부터 활발히 펼쳤다면 보다 많은 학우들의 참여를 이끌어낼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를 참고로 2학기때는 9월 말 경부터 수시지원 홍보에 들어가도록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이번 예산 자치제에서 수시지원의 의의를 살려 돈을 배정받아간 프로젝트 팀은 나운경 선생님의 여성 교육 개론 '안티 아카라카' 팀이었습니다. 총 31만원을 배정받았는데, 이 팀은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예산안을 가지고 배분받아 간 경우였는데 나중에 결산안을 보고받지는 못하였습디만 예산안과 다르게 비용을 지출하였고 총여에서 지급한 31만원이 잘 활용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배분액을 확정짓기 보다 배분 비용을 확정 짓고 결산안을 제출하는 자리에서 비용에 따라 지급해야 했었는데, 예산 자치제 최종 정리 논의에서 금액을 가지고 배분액이 확정지어져서 비합리적으로 배분액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학내 여성 자치 단체들의 경우는 1학기 동안 많은 비용이 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고 소규모의 액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액수를 배정받은 곳은 두입술입니다. 그리고 두입술을 제외한 나머지 프로젝트들은 모두 소액이어서 100% 비용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 자치제에서 몇몇 여성 자치 단체들은 성의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두입술의 경우 급전이 필요하다는 관계로 예산 자치제 이전에 총여로부터 100만원을 받아가고 예산 자치제 테이블에서 예자제 금액과 총여 지원 금액을 확정짓겠다고 했었는데 정작 두입술은 예산 자치제 테이블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페미니티와 모반도 여러차례 예산 자치제 모임에 불참하였으며 최종 배분액을 결정하는 자리에도 위카와 비온드 등 단 3개의 단위만이 참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예산자치제 참여 희망 의사만을 밝히고, 정작 테이블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돈을 배분받아 간 것은 예산 자치제와 총여 지원금의 성격을 혼동한 것이거나 다름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단위별로 예자제 참가 주체가 확정되지 않았는지 매번 들어오는 사람이 바뀌는 단위들도 있었습니다. 2학기에는 예산 자치제 운영 방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단위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1학기 예산 자치제는 위카의 레드도 언급했듯이 '자치'라는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총여의 예산 자치제는 분명 어느 예산 자치제와는 다른 성격이어야 할진대, 모여서 단순히 필요한 돈을 따내가는 자리로 여겨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있을 학내 여성주의자 첫모임에서 1학기 예산 자치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2학기 예산 자치제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 보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리고보니 지난 1학기 마지막 모임에서 말제를 하고 좀 더 많은 얘기를 해주었어야 한 건 아닌지..)

그리고, 13대부터 예산 자치제가 총 학생회비의 30%로 하기로 하였는데 신청한 단위들에게 거의 100%씩 지급하

고도 반 가까이 남은 것으로 보아 지나치게 많은 비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설마 다음 선거 공약에도 예자세 30% ..아니겠지요?...) 다음 학기 예산 자치제와 이번 학기 이월금을 합하면 450만원 가까이 될 터인데, 다음 학기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단위들이 참여하여 이 많은 돈을 배분받아 갈지 걱정이 됩니다. 여성제에 많은 참여를 유도하여 여성제에 있었던 프로젝트를 예산 자치제 자리에 가져오는 방식과, 여성학 수업 수시지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2학기 예산 자치제에서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참여하고 배분받아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엣! 총무 사업의 마지막 결정판 1학기 결산~** 오늘 이 자리에 들고 나왔습니다. 잠시 헤매긴 하였지만 누락된 것 없이 잘 정리 된 내용으로 자신합니다. 그나마 몇 안되는 총무 사업 중에 잘 된 일이 아닌가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4,682,110원의 지출을 하였는데 1학기 초에 예상했던 1500여만원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니다. 총여 행사와 예산자치제 말고 기타 물품 구입이나 잡비에는 상당히 작은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단일 행사를 위해 구입한 물품은 행사 비용에 포함시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튼.. 결산안 보면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산 공고를 벌지에 대해 얘기해보았으면 합니다. 엄청난 이월금과 잔액에 대해 빗발칠 비난도 두렵고, 시기상으로 많이 지나버려서.. 그렇지만 학생회비로 운영되는 학생회이니만큼 결산 공고를 통해 투명성을 인정받는 일도 필요하겠지요. 홈페이지를 통해 결산공고를 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정리!** 총무국의 사업은 예산안 작성, 예산 자치제, 결산으로 간단히 마무리되지만 항상 귀찮고 신경쓰이는 작업임을 절감합니다. 지급받지 못한 영수증, 빌려간 돈, 지급할 돈 등을 항상 신경써야하고, 영수증을 보면서 어디에 쓰인것인지 몰라 헤매기도 하고, 이 돈을 어느 내역에 넣어 분류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돈이 없어 입금 못해줄 때 기획사의 독촉 전화를 받는 것도 고통이구요.

총무로서 집국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겨주시고, 영수증에는 어디에 쓴 돈인지 간단히 적어주시고, 공금을 빌려간 경우에는 빨리 갚아주시고, 쓴지 한참된 영수증을 결산 다 끝나고 뒤늦게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처의 차기섭 선생님께 1학기 학생회비를 받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니 일주일 후에 총여의 새로운 한학기 살림을 위한 자금이 들어올 것입니다. 학생처에서 결산안을 요구할 경우, 오늘 제출한 결산안과는 좀 달라야 하기에 또 한번의 결산이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학기,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무사히 잘 해내온 것 같습니다. 다음 한 학기도 많은 일들이 무사히 잘 진척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였고, 남은 한 학기 더 잘 해나갑시다~!!